

탐방

(주)호산

## 환경사업 앞장서 동양최대 펄프몰드사 설립 금형개발·디자인 등 제반문제 해결, 수출도

### 의욕적인 사업 참여

20여년전 우리 주변에선 펄프몰드제품인 계란난좌를 흔히 볼 수 있었다.

그때만 해도 폐지를 전문으로 수거하는 재건대원들이 있어 종이류를 모아 재래식으로 계란난좌를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러나 석유화학공업의 발전으로 주변의 생활용품들이 플라스틱으로 대체되면서 펄프몰드는 사양길로 들어서게 됐다.

손쉬운 제조와 싼 가격으로 인해 폐지를 이용해 자원을 재생했던 이 제품의 입지가 무너져 버린 것이다.

그러나 역사의 수레바퀴처럼 펄프몰드는 최근 불어닥친 환경문제로 인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고 발포폴리스티렌(EPS) 완충재의 가장 적절한 대용재로 펄프몰드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울들어 펄프몰드사업에 신규 진출하거나 진출하려는 의지를 갖고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 수출을 위주로 한 제조업체들이 펄프몰드의 채용을 두고 고민에 빠져있는 것도 이를 입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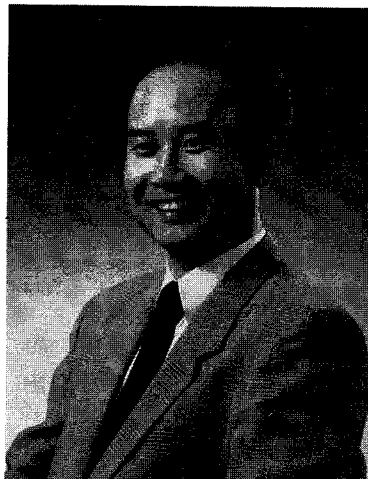
이같은 시류에 맞춰 펄프몰드제작에 참여한 업체 가운데 유난히 눈에 띄는 회사가 있다.

주식회사 호산(대표이사 이근희)이 그 회사.

지난해 1월8일 설립되어 그동안 펄프몰드사업 준비를 착실히 준비해 온 이 회사는 지난달부터 가동을 시작하여 양산체제로 돌입하면서 주위의 시선을 끌기 시작했다.

시설의 규모면이나 전체 생산량에 있어 동양 최대의 규모라는 점과 펄프몰드 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에서 막대한 투자로 업계를 놀라게 한 것이다.

9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법이 시행되고 폐기물관련 법규 가운데 그동안 포장완충재로 최고의 자리를 차지했던 EPS의 사용규제가 점차 가시화되고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자국내에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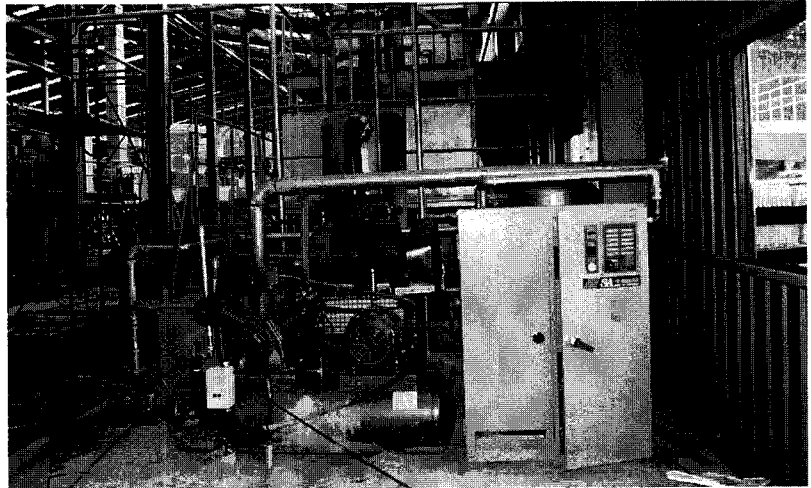
▶ 이근희 / 호산 대표이사

EPS완충재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EPS완충재가 쇠퇴하기 시작했음에도 국내에서는 아직 인식이 확산되어 있지 못해 펄프몰드시장의 형성이 늦어지고 있다.

호산은 12년동안 폐비닐을 수집해 이를 원료로 토목용 건설자재를 제조해 온 대도물산을 모회사로 일찍이 환경사업에 참여해 오던중 이 사업에 새롭게 참여하는 업체들과 기존 업체들간 심한 경쟁으로 시장질서가 문란해지자 새로운 환경사업에 대한 구상으로 환경친화적 소재인 지류제품의 재생방법을 선택, 펄프몰드사업에 착수하게 된 것이다.

## 새로운 환경사업 일환

이 회사는 현재 조직을 정비하여 완벽한 가동체제로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모든 업무 및 생산의 진행까지 총괄하여 운영하는 기획실과 업무 및 자재를 담당하는 관리부, 마케팅의 영업부, 제품개발 및 설비가동의 기술부, 생산을 담당하는 공장으로



▲ 대만에서 들여온 공업용 설비

나뉘어져 있다.

종업원은 임원 및 간부 8명, 관리사무 9명, 연구개발 4명, 생산제조 25명, 기타(일·상용) 5명 등 모두 51명이다.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펄프몰드의 주원료는 신문과 고지로 월 예상소요량이 1백25톤인데 이는 모두 자원재 생공사를 통해 조달할 예정이며, 앞으로 생산이 늘어남에 따라 원료의 사용량도 늘어나고 가능하면 국산 고지를 사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

다.

호산이 생산할 제품은 공업용과 농업용, 기타로 나눌 수 있는데 공업용은 VTR, TV, 전화기, 전기밥통, 냉장고, 세탁기, 각종 가전제품 및 공구류세트의 완충포장재이다.

농업용으로는 계란난좌, 청과물 용기, 육묘포트 등 이 분야의 새로운 수요개척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며, 화장품세트, 선물용세트, 식품용기 등 포장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제품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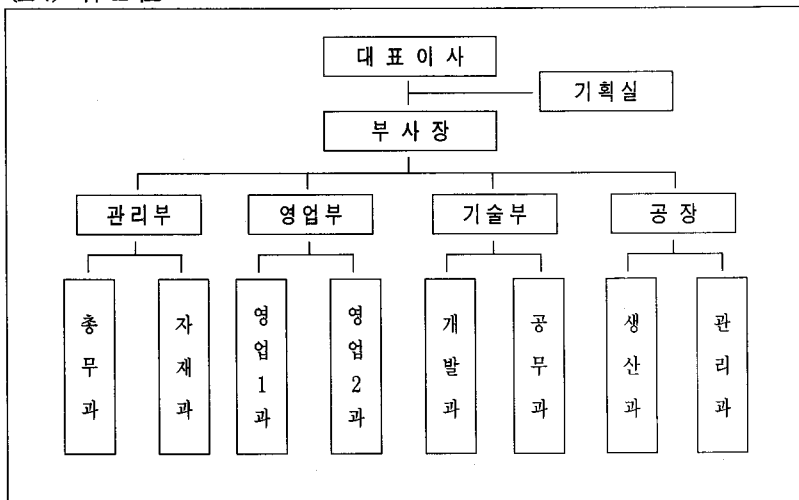
현재 호산이 개발해 놓은 제품은 가전회사에서 적용시킬 수 있는 VTR, TV 등 6개모델이며, 팩시밀리 등 10개모델은 개발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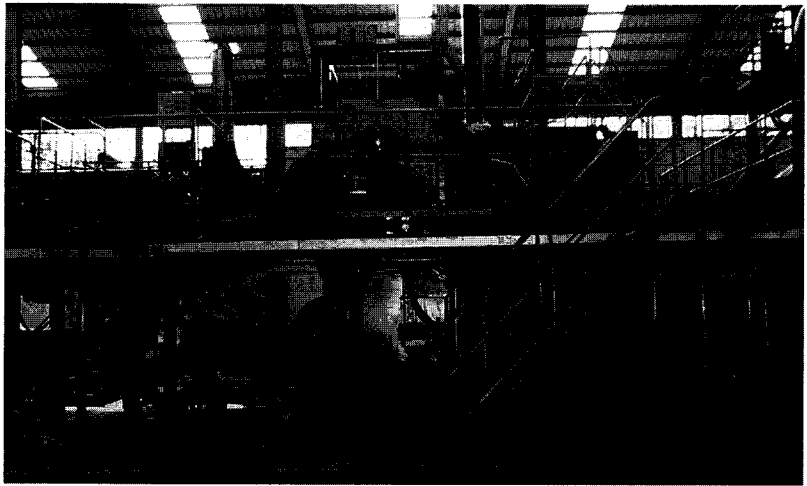
농업용으로는 계란난좌(30개들이)와 에그카톤 금형을 개발 완료했고 청과물 용기의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각종 선물세트, 화장품 세트의 개발을 협의중에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유통점들과 식품용기의 적용을 협의하고 있다.

호산은 이같은 제품의 개발을 진행하면서 설비를 도입했는데 아직까지

(표 1) 기구 조직도





▲ 일본에서 도입 설치한 국내 최대 용량의 농업용 펄프몰드 설비

국내 기술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 국산제품을 쓸 수가 없어 아쉽다고 밝혔다.

설비들은 일본과 대만에서 들여왔는데 일본에서 들여온 것은 농업용으로 일본몰드공업(주)와 협력, 기계의 설치 운용 및 제품 생산까지 호산이 자체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회사측은 자체운영 및 생산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또한 후지조기(주)와는 금형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을, 대만에서는 공업용 설비를 도입해 놓고 있다.

이 회사가 가동하고 있는 농업용 설비는 국내에서는 용량이 가장 큰 것이며, 앞으로 들여올 3호기까지 합치면 동양 최대의 펄프몰드 생산회사가 된다.

호산은 충북 음성에 대지 1만5천평, 건물 6천평의 공장을 마련하고 지난달부터 본격 가동을 시작했는데 올해 하루 생산량은 농업용 15톤, 공업용 5톤으로 모두 20톤으로 잡고 있으며, 95~96년 증설이 마무리되면 일일 60톤의 생산능력을 갖추게 된다.

호산은 현재 20벌의 금형을 발주 계약하고 3호기도 이달에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 금형20벌 발주 등 설비중설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투자를 해 사운을 걸 정도로 의욕을 갖고 펄프몰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최근 환경문제의 진행과 그동안 벌여온 환경관련 사업과 연계시키는 것으로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

이 회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은 자금조달면이었는데 금융기관에서 신용은 믿지않고 담보 제공능력부터 우선시하기 때문에 자금동원에 있어 많은 애로를 당한 것이다.

펄프몰드제작상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자 과제는 금형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국내에선 기술력 부족으로 아직 금형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호산은 펄프몰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형 제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판단아래 내년부터는 자체로 금형까지도 제작하는 연구를 진행중이다.

실제로 금형 제작의 어려움으로 제품가격이 상승하고 시간적인 손실, 다품종 소로트 화되어 가는 공업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금형의 제작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근희 사장은 "앞으로 펄프몰드 제조업체들의 협의체를 구성해 판매,

최근 환경보호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EPS의 사용을 억제하는 방안이 선진국들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연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호산은 막대한 설비비를 들여 동양 최대의 공장을 운영, 업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아직 눈에 띄는 성장은 보이지 않지만 향후 EPS의 가장 적절한 대응재로 각광받고 있는 펄프몰드 제조업계에서 그 역할이 기대된다.

제조, 기술개발 등 의견교환으로 업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중소업체가 협력하여 수요자인 대기업에 적절히 납품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 말했다.

이 사장은 "원가측면에서 수요업체 경영자가 많은 관심을 갖으면 무공해 포장재의 채용은 어렵지 않으나 현상황은 관심이 적어 어려움이 많다"며 사업을 추진하며 느낀 점을 토로했다.

특히 이 사업은 정부를 비롯해 관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기업의 정책을 반영하고 정부 부처간 조정으로 사전에 대처토록 각종 정책을 규제나 권장해야 국가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기도 했다.

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지론을 펴기도 했다.

### 정부·국민·업체의 3박자 필요

이 사장은 "국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는 방안이 적고 경영층의 모든 일을 쉽게 풀어가려는 의식이 필요한데도 실체는 그렇지 못하다"며 "빠른 선택이 이루어질수록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 관련기관에서 목표설정 및 방향을 올바르게 제시해줘야 업체들이 이를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호산은 제품을 용도별로 특화시킬 방침이며, 5~6건에 대한 특허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내년에는 획기적인

상품을 선보일 계획으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의 진출도 추진중이다.

호산은 그동안 펄프몰드의 취약점으로 지적되었던 문제들, 즉 습기에 약한 것과 금형제작, 완충성, 색 및 외형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근 시험으로 제작한 제품의 누수시험결과 15일 이상 별다른 문제가 없어 이 문제는 해결됐고 내년부터 금형이 본격 제작되면 다른 부분은 해결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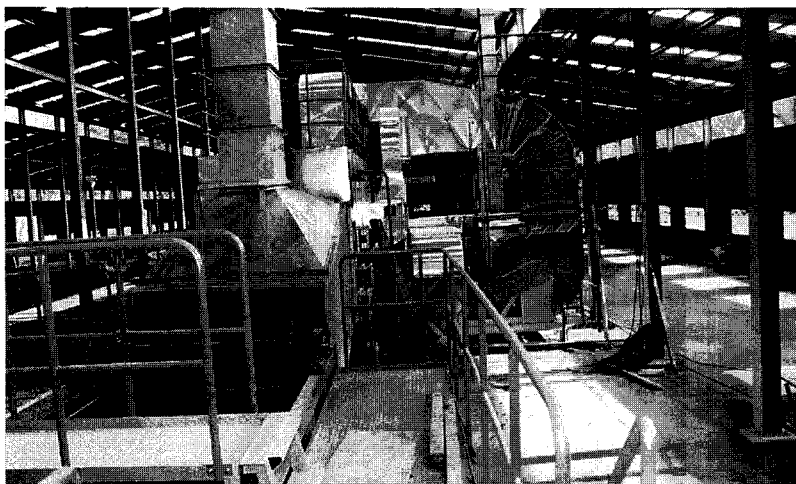
남보다 빠른 행보와 시각으로 환경사업에 뛰어들어 서서히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회사.

그러나 아무리 좋은 내용일지라도 주변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의 정책추진, 수요자의 적극적인 채용이 이루어질 때 이를 추진한 업체는 보람과 신명이 나올 것이다.

스스로 만족하고 위안을 삼으면서도 아직도 환경에 대한 현실감각이 무뎠던 우리 주변을 호산은 앞서서 뛰고 있다.

오선진 기자



▲ 생산된 펄프몰드를 건조시키는 건조장치